

남북한 음악교류의 양상과 방향

배인교 (경인교대 한국공연예술연구소)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남북 음악 교류의 양상을 검토하면서 향후 남북 음악 교류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남북 음악 교류는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네 시기로 나뉘볼 수 있었다. 제1기인 1985년에 처음으로 남북 음악 교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였던 1985년에 비해 1990년에는 통일 지향적 공통점을 찾거나, 남북 모두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를 찾기도 하였다. 햇볕정책과 함께 이어진 2기의 남북 음악교류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음악 교류가 있었으나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많았으며, 북한보다는 남한에서 적극적이었다. 이어진 3기의 10년간은 단 1회도 음악 교류 행사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류보다는 가상공간인 YouTube에서의 음악교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음악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았다. YouTube를 통한 음악 교류는 2018년에 들어 16년 만에 실제 교류로 실현되었다. 정치 교류의 재개와 함께 이루어진 음악 교류는 비록 한계가 존재하나 남북의 민족공동체 인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남북 음악 교류를 위해서 남과 북은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협력과 관련한 통일교육이나 문화다양성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상대의 음악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 정례적 교류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남북 음악 교류, 적대적, 통일 지향적 공통점, YouTube, 민족공동체 인식, 통일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I. 들어가는 글

2018년 들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공존에 대한 논의는 분단 이후 남북한 상호간 반목의 역사를 상쇄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 없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작된 판문점 JSA, 철원 DMZ 일대 및 화살머리 고지의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 10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서 비준, 전쟁 이후 65년만에 이루어진 JSA 비무장화 등은 남북의 신뢰프로세스를 작동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201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은 그간의 남북교류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였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반목의 시기에 남북교류의 포문은 항상 음악공연으로 열렸다. 예를 들어 1985년 적십자회담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한 음악교류는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한민족의 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큰 틀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그간 진행되었던 남북한 교류 중 직접적인 교류 음악회는 1985년, 1990년,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인 1998년~2007년, 그리고 2018년에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음악교류의 내용과 교류의 양상, 그리고 향후 음악교류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시기의 음악 공연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교류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2000년대 이전에 있었던 방남 공연 영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북한 음악 및 저작물을 관람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2000년대 이전에 있었던 1985년과 1990

년의 방남 방북공연은 당시 음악교류를 다루었던 보고서를 참조하면서 1990년대 남북교류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며,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음악회에 대해서는 공연시기와 공연목록을 정리하고 특정 공연에 한하여 당시 반응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음악교류의 성과와 한계를 당시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 있었던 음악교류의 양상과 2018년의 방남, 방북공연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견지해야할 방향성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공연 교환방문>부터 2018년 상반기에 있었던 음악공연의 내용과 남북한의 평가를 당시의 보고서와 미디어 매체의 기사를 바탕으로 검토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이 글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나 향후 음악 교류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Ⅱ. 남북 음악 교류의 양상

1. 1985년, 남북 음악 교류의 시작

북한에 대한 반북과 반공교육을 주도하였던 군사정부시절인 1985년에 남북한 음악교류는 처음 시작되었다. 갑작스럽게 구성된 1985년의 공연은 적십자회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1984년 수해로 인해 한강이 범람하자 북한의 적십자사는 남한의 수재민을 위해 구호품을 전달할 의사를 보냈다. 북한의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t, 기타 의약품 제공 의사를 남한 정부가 수락하면서 북한 물품이 남한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

를 계기로 적십자회담을 이어가던 남북한은 1985년 5월 〈제8차 적십자회담〉에서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제1차 상호 고향방문단 상호교환제의를 하였다.

1985년 9월 20일 남북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서울·평양 동시 교환이 실현되었다. 이때 교류 규모는 단장 1명을 비롯하여 고향방문단 50명, 예술 공연단 50명, 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 등 남북 각각 151명이 판문점을 거쳐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서울과 평양에서 예술 공연을 진행¹⁾하였다.

남측의 예술 주체는 방북공연을 위해 새롭게 조직된 서울예술단(총감독: 김치곤, 무대감독: 유경환, 제작기획: 이주형, 구성·연출: 박만규)이다. 서울예술단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대극장에서 총 두 차례 공연을 가졌으며, 공연은 민족 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하되 공연 때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방·중상·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공연종목만 소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연 목록은 3일 전에 상대방측에 통보하며, 공연을 위해 관계자 5명이 사전에 답사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공연은 전체 2부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1〉은 서울예술단의 공연목록과 참여 예술인 명단이다.²⁾

1) 김춘미·김용환·민경찬·이영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pp. 11~12.

2) 김춘미·김용환·민경찬·이영미, 앞의 책, pp. 18~20 참조.

〈표 1〉 1985년 서울예술단 평양대극장 공연 목록

제1부: 겨레의 백박		
순서	공연 목록	참여 예술인
1	개막무용 〈북소리〉	안무: 김백봉
2	민속무용 〈태평성대〉	
3	민속무용 〈승무〉	안무: 정재만, 출연: 이정숙
4	민요합창 〈울산아가씨〉, 〈жат은 산타령〉	편곡: 김희조, 출연: 김동곤 외 17명
5	창작무용 〈꽃보라〉	작곡: 김희조, 안무: 정승희 출연: 정재만 외 24명
6	가곡 〈사공의 노래〉	노래: 바리톤 김성길
7	창과 민속무용 〈강강술래〉	안무: 송범, 창: 안숙선 출연: 양승미 외 23명
8	민속무용 〈봉산탈춤〉	안무: 김선봉, 출연: 정재만 외 11명
9	민속무용 〈부채춤〉	안무: 김백봉, 출연: 양승미 외 23명
10	재담 〈고향 가는 길〉	남보원, 백남봉
제2부: 2000년대를 향하여		
11	현대무용 〈겨레의 갈망〉	작곡: 김정길, 안무: 최정자 출연: 최용준 외 34명
12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불효자는 읍니다〉	노래: 김정구, 김희갑
13	가요 합창 〈아리랑 목동〉, 〈신고산타령〉, 〈고향만리〉, 〈서울의 찬가〉	편곡: 장익환
14	가요 〈절레꽃〉 〈꿈에 본 내 고향〉 〈삼다도 소식〉	노래: 하춘화 노래: 나훈아
15	현대무용 〈2천년대를 향하여〉	편곡: 장익환, 안무: 한익평 출연: 최용준 외
16	가곡 〈그리운 금강산〉	노래: 소프라노 이규도
17	민속무용 〈농악〉	안무: 국수호, 출연: 정재만 외 33명
18	전원 합창 〈아리랑〉	편곡: 김희조, 출연: 정재만 외 44명

위의 공연 종목에서 보듯이 전통과 연관된 민속무용, 민요 및 신민요, 흥난파가 작곡한 〈사공의 노래〉와 일제강점기 창작된 대중가요,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작품을 한데 섞어 종합예술공연형태의 무대를 연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연 대부분이 일제강점기까지 공유했던 예

술 중 대중예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아가씨〉는 월북 음악인 이면상이 1930년대 만든 노래이며, 〈жат은 산타령〉과 〈봉산탈춤〉은 북한 땅인 황해도지방의 민속예술이라는 점 등이 그렇다.

그러나 서울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하여 북한 음악계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먼저, 제목에서부터 ‘겨레의 맥박’이라 하면서 현대적 미감에는 전혀 맞지 않는 〈жат은 산타령〉, 〈강강술래〉 등을 불렀으며, 완전한 복고주의와 비굴한 사대주의의 진창 속에서 낙후하고 폐쇄적인 전통 문화가 번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민속무용 〈승무〉는 종교적이며, 창작무용 〈꽃보라〉는 관객 앞에서 남녀가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양풍(미국식)화되고 퇴폐적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쳤다고 하였다. 또한 〈눈물젖은 두만강〉이나 〈짚레꽃〉과 같은 일제강점기의 가요는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증거이며, 남보원과 백남봉의 〈재담〉에서는 북한을 웃음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희화화했다는 점을 들며 불쾌해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남한 측에서도 반성할 정도였다³⁾고 한다.

한편 같은 기간 남한의 국립중앙극장에서 있었던 평양예술단의 공연 역시 2회였으며, 아래의 공연목록에도 보듯이 남한의 것처럼 무용과 노래가 어우러져 있었다.

〈표 2〉 1985년 평양예술단 국립중앙극장 공연 목록

순서	공연목록	참여 예술인
1	무용 〈금강선녀〉	
2	여성 2중창 〈노들강변〉, 〈조선팔경가〉, 〈도라지타령〉	
3	무용 〈손복춤〉(풍년 든 벌판에서)	
4	가야금 연주 〈봄〉	가야금: 배금옥

3) 김춘미 · 김용환 · 민경찬 · 이영미, 위의 책, pp. 23~31.

5	무용 〈달맞이〉	
6	남성 4중창 〈양산도〉, 〈까투리타령〉, 〈웃음꽃이 만발했네〉	
7	무용 〈칼춤〉	
8	장새납 독주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 금강마을〉	장새납: 최명천
9	무용 〈3인무〉	
10	무용 〈샘물터에서〉	
11	여성 4중창 〈모란봉〉, 〈새 봄을 노래하네〉, 〈뼈꼭새〉	
12	무용 〈쟁강춤〉	

199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에서 출판한 남북교류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연 목록은 갖추었으나 공연에 참여한 예술인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실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과의 첫 번째 교류공연으로 인해 북쪽 예술인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에 정리된 평양예술단의 공연목록에서 보듯이 1985년 공연에서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신민요를 많이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래로 불린 〈노들강변〉, 〈조선팔경가〉, 〈양산도〉, 〈까투리타령〉, 〈모란봉-창부타령〉, 〈새 봄을 노래하네-처녀총각〉, 〈뼈꼭새-포곡성〉⁴⁾이 모두 그렇다. 다만 이 노래들이 중창형태로 불린 것으로 보아 남한처럼 단성(Monophony)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화성을 넣어 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요에 화성을 쌓아서 연주하는 행위는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일반적인 관례는 아니다. 그러나 1985년 북한 연주단의 민요 연주는 1985년 전통음악계에 큰 충격을 안겼을 것이고 전통을 해쳤다는 입장으로 인해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4)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에서는 〈모란봉〉과 〈뼈꼭새〉를 북한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보았다. 그러나 〈모란봉〉은 경기민요 〈창부타령〉의 가사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칙에 따라 개작한 것이며, 〈뼈꼭새〉는 1936년에 왕수복이 부른 〈포곡성〉이다.

남한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대한 남한 예술계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었다. 『경향신문』에는 “이들의 공연은 인간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예술성이 결여된 반면 대중성과 정치성이 두드러졌다. … 북의 예술은 규격화되고 정형화한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현대화작업에 의한 민속음악과 무용에 있어 전통성의 상실 내지는 변질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공연은 전반적으로 외화내빈의 인상”을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⁵⁾를 수록하였으며, 아래의 사진에 대한 설명⁶⁾을 보더라도 당시 중도적 성격을 띠었던 일간지에서도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그림 1〉 1985년 9월 23일자 『경향신문』 3면의 남북예술 비교



너무다른 南과北

남북간의 공연예술 교류공연이 21·22일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다.북한의 공연예술은 규격성과 획일성이 두드러졌고 전통의 변질내지 상실이 눈에 띄었다.

(사진左는 우리측의 부채춤,右는 북한예술단의 정강춤 장면)

이와 함께 북한의 평양예술단 공연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북한의 공연예술-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평가』(1985.12)⁷⁾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전통성 없고 정형화, 여백이 없다 - 북 예술단공연을 보고…,” 『경향신문』, 1985년 9월 23일.

6) 『경향신문』, 1985년 9월 23일.

7) 김춘미·김용환·민경찬·이영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pp. 49~53.

- ① 국악기를 서양악기화하고 춤동작에 중국, 러시아, 동남아의 춤사위를 받아들이는 등 전통을 훼손하고 국적불명의 예술을 만들었다.
- ② 30, 40년대 악곡, 신파조, 대중가요적 발성, 원색과 스팅크(뽀짝이) 등을 남용한 의상 등에서 보이는 미감이 예술적이지 못하고 유치하다.
- ③ 억지웃음과 억양 등이 거부감을 준다.
- ④ 공연의 구성, 무용의 공간구성과 음악의 화성과 구조 등 형식적 측면이 단순하며, 개성과 창의성이 없이 획일적이다.

분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 예술단의 음악 교류는 그 시작이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한 것에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과 체제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모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남한에서의 북한음악연구, 그리고 북한에서의 남한음악연구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예술단의 음악성을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남북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는 반목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음에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실행된 1985년의 교류 음악회는 그 규모의 크기와 비판적인 반응에 상관없이 한반도 음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한 번의 교류에서 남북은 서로의 음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직감했으며, 이것은 1988년 이후 남한에서는 전통악기개량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전통문화의 원형보존에 대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1990년 남북 음악 교류

1985년의 남북한 음악 교류 이후 남한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있었으며,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10월 27일에 있는 ‘월북 음악인들의

분단 이전 행보와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가 있었다. 1985년의 경험과 1988년의 월북예술인에 대한 해금조치는 남한 음악인과 연구자들에게 북한 음악과 음악인에 대한 언급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였으며, 제한적이거나 접근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북한 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학계의 상황과 맞물려 1990년 2월에는 '남북문화교류의 5가지 원칙'⁸⁾을 문화부와 통일부가 마련하였으며, 통일원에 남북교류문제를 심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올림픽 이후 사회 각층에서 통일운동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으며, 1990년 10월에는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10월 18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이 음악회는 “남과 북, 해외의 동포음악가들이 함께 출연하는 음악회를 열자”는 목적으로 작곡가 윤이상이 위원장을 맡았던 ‘범민족 통일음악회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실현되었으며, 남북한 및 해외의 동포들이 참가한 음악행사였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비록 윤이상이었고 준비위원회의 명의로 음악인들을 초청하였으나 실제로는 북한이 남쪽 음악인들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초청하는 모양이어서 당시 언론들이 주의를 집중⁹⁾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부가 불허의 입장을 표명하였다가 이후 남북적십자사를 통해 김원균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초청장과 각서가 송부¹⁰⁾되면서 승인 쪽으로 기울었다.

8) 1990년 남북문화교류의 5가지 원칙: 1) 분단이전의 우리 전통문화를 우선한다.

2) 송부 및 경쟁적 분야는 배제한다. 3) 전통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하는 표현방식은 지양한다. 4) 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5) 공동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9) 『한겨레신문』, 1990년 8월 29일. “비록 윤이상씨의 이름으로 돼있지만 북한이 남쪽 음악인들을 공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8월 1일 남북교류협력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0) 『동아일보』 1990년 9월 20일. “북서 초청받은 인사 명단: 황병기(이대음대교수), 오정숙(국립창극단 지도위원), 정화영(국립창극단 단원), 김정수(추계예술대학교

범민족 통일음악회의 초청장에는 “남과 북, 해외 동포 음악가들이 모여 우리 겨레의 비등한 통일염원을 선율에 담고 노래로 구가한다면 조국 통일을 위한 성업에 훌륭한 기여가 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또한 음악회 안내문에 적힌 ‘참가종목’은 “△북과 남, 해외에서 창작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과 민족애를 담은 작품 △우리나라 민요 △해방전 우리나라 대중가요”¹¹⁾였다. 1990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의 서울 전통음악연주단 공연 목록과 연주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 〈서울전통음악 연주단〉 공연목록

순서	연주곡	연주자
1	평시조 〈마음이 지척이면〉, 휘모리시조 〈창 내고자〉	창: 김월하 대금: 홍종진, 장구: 김정수
2	황병기 작곡 〈비단길〉	가야금: 황병기, 장구: 김정수
3	〈엄마야 누나야〉, 〈고향의 달〉, 〈우리는 하나〉	창: 윤인숙, 대금·훈: 홍종진, 장구: 김정수, 가야금: 황병기
4	단소연주 〈청성곡〉	단소: 홍종진
5	〈수심가〉, 〈역음수심가〉(평안도민요)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황해도민요) 〈개타령〉(평안도 민요)	창: 오복녀, 김광숙
6	대금산조	대금: 정철수, 장구: 김정수
7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전라도민요) 판소리 〈심청가〉 중 부녀상봉장면	창: 오정숙, 북: 정철수
8	사물놀이 〈삼도 농악 가락〉	장구: 김덕수, 쥘과리: 이광수, 북: 강민석, 장: 김운태

국악과 교수), 홍종진(이대음대교수), 김월하(전국시우단체 총연합회장), 오복녀(중앙대 음대강사), 김광숙(국립국악원 단원), 윤인숙(단국대 음대교수), 김덕수(한국전통예술보존회장), 이광수(한국전통예술보존회운영위원), 강민석(한국전통예술보존회운영위원), 김운태(한국전통예술보존회원), 노동은(목원대 음대교수), 임연철(동아일보 문화부차장), 안정숙(한겨레신문기자), 김경희(중앙일보 기자)

11) 『한겨레신문』, 1990년 8월 30일.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이 연주한 악곡은 단체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범민족대회 초청장의 참가종목에 부합한 작품들이다. 이 연주회에 참가한 남측 언론사의 기자들은 모두 ‘열의’와 ‘뜨거운 갈채’라는 말로 평양에서의 환대를 기사화¹²⁾하였다. 특히 “남과 북의 음악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와 공통점이 모두 있지만, 음악의 흐름은 역시 같다면서 “온갖 종류의 외국음악예술이 범람하는 속에서 민족적 뉘과 우리 음악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북측의 장철 문화예술부부장이 한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공연에 대한 소감을 인용하면서 북한에서의 환대를 표현하였다. 1990년 10월 범민족통일음악회가 끝난 후인 1990년 12월 『조선예술』에는 범민족통일음악회와 관련하여 성동춘, 한영애¹³⁾, 그리고 김원균의 글이 실렸으며, 남측 연주단은 성동춘만 언급하였다.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성동춘¹⁴⁾은 남한의 전통음악과 북한의 민족음악을 언급하면서 “제한된 음악유산을 가지고 제각기 주어진 사회문화적 요구와 환경에 따라 자기식으로 민족음악을 발전시켜왔”으나 “민족음악전통이란 말그대로 하나의 민족이 대대손손 이어받아온 슬기와 예지로 이룩된 온겨레의 재보”이므로 “북쪽의것과 남쪽의것, 해외의것이 따로 있을수 없다는것은

12) 『한겨레신문』, 1990년 10월 20일. “연주회가 끝나자 무대와 객석에서는 〈우리의 소원〉 노래가 동시에 번져 나왔고 북의 문화예술인들은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연주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13) 준박사 한영애, “(관평) 온 민족이 함께 부른 통일의 노래 -범민족통일음악회를 보고,” 『조선예술』, 12호 (평양: 문예출판사, 1990), pp. 15~16;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원균, “(수기)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성과적으로 치르고나서,” 『조선예술』, 12호 (평양: 문예출판사, 1990), p. 17.

14)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성동춘, “(론설) 하나의 민족음악으로 조국통일성업에 이바지하자,” 『조선예술』, 12호 (평양: 문예출판사, 1990), pp. 13~14.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남측의 전통음악공연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측에서도 범민족통일음악회 이후 신문지상에 북한의 전통문화와 음악유산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¹⁵⁾하면서 남북의 음악교류에 대한 희망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초청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문화부는 “북한의 전통음악가들을 ‘90년 송년통일음악제’에 초청하는 것”을 통일원과 청와대, 안기부 등의 부처와 합의¹⁶⁾하면서 서울에서 송년통일음악회 개최를 준비하였다. 이번 음악제 역시 정부는 처음에는 북한 초청을 불허하였다가 11월 말에 확정되면서 북측 음악인과 관계자 33인이 방남하였다. 통일음악회를 개최하기 전에 양측은 공연의 형식과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로써 공연은 12월 9~10일 이틀간 예술의전당과 국립극장에서 합동공연형식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평양민족음악단이 선보일 노래는 〈통일의 길〉, 〈우리의 소원〉 등 통일노래 2곡, 〈평북영변가〉, 〈노들강변〉, 〈양산도〉 등 민요 13곡, 단소독주 〈중모리, 안팡〉, 옥류금독주 〈도라지〉 등 기악곡 2곡, 〈바다의 노래〉, 〈춘향전〉 중 ‘사랑가’의 창작곡 등 19곡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한측에서는 〈침향무〉, 판소리, 사물놀이, 북춤, 창극 〈아리랑〉 등을 공연하기¹⁷⁾로 하였다.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평양민족음악단의 실제 공연 목록과 연주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중 평양민족음악단 공연

순서	연주곡	연주자
1	여성5중창 〈민요연곡〉	송영희 외 4명
2	단소독주 〈중모리〉, 〈안팡〉	단소: 정동환

15) 『한겨레신문』은 1990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6회에 걸쳐 〈북녘땅, 사람과 문화〉라는 제명의 연재기사를 실었다.

16) 『한겨레신문』, 1990년 11월 8일.

17) 『한겨레신문』, 1990년 12월 4일.

3	여성민요독창 〈능수버들〉, 〈양산도〉	배윤희
4	여성민요3중창 〈신고산타령〉	배윤희, 장애란, 백순희
5	남성민요독창 〈산천가〉	김진명
6	혼성민요 5중창 〈회양닐리리〉	리성훈 외 4명
7	여성독창 〈평북녕변가〉, 〈바다의 노래〉	백영희
8	여성독창 〈해당화〉	백영희
9	옥류금독주 〈도라지〉	김길화
10	여성저음독창 〈통일의 길〉	송영희
11	가야금독주와 병창 〈옹헤야〉	리순화 외
12	민요독창 〈배따라기〉	김진명
13	혼성민요제창 〈정방산성가〉, 〈자진난봉가〉	김진명, 김관보
14	소합창 〈우리의 소원은 통일〉	출연자 전원

1990년 12월 성동춘을 단장으로 한 평양민족음악단은 1985년에 이어 두 번째 북한 음악인의 연주로 남측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기사¹⁸⁾에 따르면 두 차례 공연에 3800여장의 입장권에 대하여 “송년통일음악제 입장권의 일반예매가 실시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서적·교보문고 등에는 판매시작 1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표를 구하러 몰렸으나 예매처마다 배당된 표가 70~1백30장밖에 안 돼 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항의소동이 빚어졌다”고 하여 당시 북한 연주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후 다수의 일간지 1면에 ‘목메인 합창¹⁹⁾’, ‘통일의 화음²⁰⁾’, ‘흥겨운 국악한마당²¹⁾’ 등의 제목으로 사진을 실었으며,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화답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북남의 통일열기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성동춘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밝혀²²⁾ 놓았다.

18) 『한겨레신문』, 1990년 12월 9일.

19) 『매일경제』, 1990년 12월 10일.

20) 『동아일보』, 1990년 12월 10일.

21) 『경향신문』, 1990년 12월 10일.

22) 『매일경제신문』, 1990년 12월 10일.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5년의 공연은 남북 모두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신민요와 대중음악을 주로 하면서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었다. 이에 비해 1990년 10월과 12월 두 달의 시간차를 두고 진행된 남북음악교류연주회는 1990년 2월에 문화부와 통일원에서 발표한 남북문화교류 5원칙 중 “분단이전의 우리 전통문화를 우선”한다는 항목에 부합된 연주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공연은 단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였다. 특히 월남 음악인인 오복녀와 그 제자가 부른 서도민요는 북한에서 부르지 않은 노래들을 월남한 음악인이 남한에서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옛 음악을 보여주었던 남한의 ‘서울 전통음악 연주단’ 평양공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공연된 곡목이나 연주자의 기량과 같은 연주곡의 내용보다는 이 연주회가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²³⁾하였다.

또한 12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중 평양민족음악단 공연에서는 민요와 신민요, 그리고 남한에서 연주하지 않았던 단소산조, 북한에서 만든 민족악기 옥류금 연주가 있었다. 이중 특기할만한 것은 김진명과 김관보이다. 김진명은 일제강점기에 서도민요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며 10월의 〈서울전통음악연주단〉에 참여했던 오복녀의 스승들과 친분이 깊었던 인물이었다. 김관보 역시 평양예기조합출신의 민요가수였다가 전쟁 후 북한에 남았던 인물이다.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중 평양민족음악단 공연에 대하여 남한의 반응²⁴⁾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23) 김춘미·김용환·민경찬·이영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p. 33.

24) 김춘미·김용환·민경찬·이영미, 위의 책, pp. 67~70.

- ① 북한의 전통음악 계승은 한편으로 서양음악 지향적이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시김새와 정서, 질감 등 우리 음악의 맛을 드러내고 있음으로써, 이질성만큼이나 동질성도 크다.
- ② 전통의 현대화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③ 북한의 전통악기 개량은 남한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 한편, 서양악기에 가까워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④ 북한의 예술에 보이는 체제적응적인 경향성과 단정한 형식미를 지니고 있다.
- ⑤ 북한의 맑고 투명한 발성법은 북한 체제 자체가 맑은 소리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맑은 소리로 이루어진 서도 전통음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⑥ 가사전달이 분명하였다.

1990년 남한과 북한의 음악 교류의 양상과 반응은 분명 1985년과 많이 달라있다. 적대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였던 1985년에 비해 1990년에는 음악적 분석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며, 통일 지향적 공통점을 찾고, 남북 모두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를 찾는 등 긍정적이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교류가 아닌 민간교류에 의한 음악교류였다는 점이 다르며, 통일에 대한 민족적 관심이 뒷받침된 공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의 방북, 방남 공연은 이후 남한에서 민간교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의 연주회는 남북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남측에서는 북한의 연주회 내용 중 옥류금과 단소산조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가야금연주자 중심으로 옥류금을 배워 연주하거나 잊었던 단소산조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사물놀이의 파급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북한에서 사물놀이와 비슷한 타악기의 합주형태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시조이다. 북한에서 시조는 양반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서 흥얼거리는 노래로 인식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연구되지 않은 장르였다. 그러나 1992년 『주체문학

론』에서 김정일이 30여년 만에 시조를 긍정적으로 재호명하였다는 연구²⁵⁾를 보면 1990년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연주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편 1985년 이후 월북음악인에 대한 해금과 함께 북한음악의 이해가 높아졌으며, 연구 성과도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북한 음악 연구를 진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연구 성과도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의 음악계 인식이나 보고서에서 창부타령의 변형에 해당하는 〈평북녕변가〉나 우리의 〈벚노래〉와 같은 〈바다의 노래〉 등을 창작민요로 인식²⁶⁾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남북 음악 교류(1998년~2007년)

1998년 남한에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시기를 마친 후 대북·대남관계와 정책은 일대 변화를 맞이하였다. 소위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김대중 정부의 평화공존에 대한 노력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냈으며,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을 논의하는 등 경제협력에 대한 상호이해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1990년 남북음악연주회 이후 8년 만인 1998년 5월에 리틀엔젤스예술단의 방북공연이 평양의 봉화예술극장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 공연 이후 노무현정부의 끝자락인 2007년까지 약 18차례의 남북음악교류 공연이 있었다. 1998년부터 10년 동안 이루어진 남북교류음악회²⁷⁾를 정리하고 윤

25) 박미영, “북한에서의 시조 연구 동향과 과제 -1980년대 이후의 논저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39권 (2013), pp. 17~18.

26) 김춘미·김용환·민경찬·이영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p. 65.

27) 이우영·천현식의 목록에 2개를 추가하였으며,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공연은 제외함. 이우영·천현식, “남북 사회문화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8년 학술대회: 지난 10년 대북정책·교류의 회고와 평가』,

이상 통일음악회와 평화친선음악회, 민족통일음악회에 한하여 공연의 성격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 5〉 1998년~ 2007년 남북음악교류 양상

	기간	행사명	장소	내용
1	1998.5.2.~12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평양 봉화예술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3회 공연. 민속무용, 가야금병창
2	1998.11.3	제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	평양 모란봉극장	북한국립교향악단과 남한 연주가 협연
3	1999.12.5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평양 봉화 예술극장	남북한 대중음악
4	1999.12.20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평양 봉화 예술극장	남북한 대중음악
5	2000.5.26~28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공연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북한 민족음악
6	2000.8.18~24	남북교향악단합동연주회 (조선국립교향악단·KBS교 향악단, 서울)	서울 KBS홀, 예술의 전 당 콘서트홀(북측 단독 2회, 남북 합동 2회)	유럽 고전음악과 북한 창작 관현악 등
7	2001.2.1~2	창극 〈춘향전〉 방북 공연	평양 봉화 예술극장 (남원춘향예술단 구성)	창극/ 민족가극
8	2001.3.26~27	창극 〈황진이〉 공연	금강산 문예회관	서라벌국악예술단 (단장: 홍성덕)의 창작 창극
9	2002.8.15	8.15민족통일대회 북측 예술단 초청 공연	코엑스 오디토리움	북한 민속무용
10	2002.9.20 (KBS단독) .9.21 (합동공연)	추석맞이 남북교향악단 평양 합동연주회	평양 봉화극장	관현악
11	2002.9.27~29	2002 MBC평양특별공연	동평양 대극장	남북한 대중음악
12	2003.8.9~12.	KBS 평양노래자랑	평양 모란봉 공원	
13	2003.10.8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통일음악회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남한 대중음악 북한 대중음악
14	2005.6.14~17	6·15 통일대축전	평양	민족가극 〈춘향전〉과 가극 〈금강〉

15	2005.8.23	조용필 평양 공연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대중음악
16	2005.9.28~29	금강산 민속문화축전	금강산	남한 전통예술, 북한 민족음악
17	2006.4.29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개최	금강산 문화회관	창작국악, 윤이상 작품, 북한 민요풍 노래
18	2006.10.19~20	윤이상 평화음악축전 2006	도교예술대 주악당, 서울 예술의전당, 베를린 성 마태 교회, 뮌헨 갈 오르프 첼트룸, 평양 윤이상음악당	윤이상 작품

1998년부터 10년간 지속된 남북음악교류의 첫 사례에 참여한 리틀엔젤스예술단은 문선명의 통일교재단에서 창단한 예술단체이며, 이 재단에서 출자하여 설립하게 된 북한 평화자동차 공장 지원 사업 논의와 함께 방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윤이상의 제명으로 제1회 윤이상통일음악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이 연주회의 특징은 “각각의 연주로 서로의 기량을 뽐내기도 하고, 협연하거나 서로의 곡을 바꿔 연주해 화합의 기운을 북돋”는 것에 있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 모란봉극장과 윤이상음악당에서 개최된 이 음악회에 남측에서는 음악학자, 작곡가, 지휘자, 양악 연주자, 국악인들이 고르게 참여한 ‘서울연주단’이 참여하였고, 북측에서는 국립 교향악단과 윤이상관현악단이 참여하였다. 이 연주회는 협연에 방점을 두었다. 즉, 이진용의 〈들의 노래〉와 박범훈의 〈사물놀이와 민족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을 북측 관현악단이 연주하고, 북측의 최성환이 작곡한 관현악 〈아리랑〉을 박범훈의 지휘로 연주²⁸⁾하였다.

이 연주회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1990년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

28) 『한겨레신문』, 1998년 10월 29일

적이다. 특히 “음악회의 종목은 윤이상음악, 조국통일주제음악, 민족전통음악, 구라파고전음악으로서 민족음악만을 위주로 하던 지난 시기의 통일음악회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민족의 조국통일열망이 높아가고있는속에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도 하나, 민족도 하나, 음악도 하나라는것을 굳게 확신”하였으며,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한데 어울려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한 것으로 하여 조국 통일운동사의 한페이지에 아로새겨진 뜻깊은 음악회”라고 하였다²⁹⁾.

다음 해인 1999년에는 방송사가 주관하는 음악회가 두 차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위의 표에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³⁰⁾는 SBS에서 주관하였으며, 제1회민족통일음악회는 MBC에서 주관하였다. 이 두 음악회는 남측의 방송사가 주관하고 대중음악을 주요 레퍼토리로 하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으나 음악의 내용은 전혀 달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평화친선음악회에서는 트롯트 음악과 함께 잭스키스와 핑클이 참여하였다. 이에 비해 민족통일음악회에는 차인태의 사회로 그룹 코리아나, 현철, 김중찬, 안치환, 신형원, 오정해 등과 북측의 보천보전자악단 소속 가수들인 리분희, 리경숙, 럽칭, 전해영 등이 출연하여 함께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이 두 음악회의 공연 목록을 정리³¹⁾하면 다음과 같다.

29) 학사 김성률, “(관평) 조국도 하나, 음악도 하나 -윤이상통일음악회를 보고,” 『조선예술』, 1호 (평양: 문예출판사, 1999), pp. 53~54.

30)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69031>)

31) SBS공연목록은 평화친선음악회 동영상을 정리한 것이며, MBC의 공연목록은 『한겨레신문』, 1999년 12월 20일자. 29면의 “평양공연 남·북 ‘민족통일음악회’ 오늘밤 10시 50분 위성녹화중계 MBC-TV” 내용을 참조함.

〈표 6〉 1999년 SBS와 MBC 주관 방북 공연

SBS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MBC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로저 클린턴 밴드	컨츄리뮤직	1	리경숙(북) 신형원(남)	반갑습니다
핑클	To My Prince	2		서울에서 평양까지
설운도	누이	3	김광숙(북)	백만송이 장미
최진희	사랑의 미로 평양중앙예술선전대 전자음악조 반주	4	안치환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젝스키스	예감	5	안치환 신형원 김광숙 리경숙	아침이슬
태진아	사모곡	6	리분희(북)	녀성은 꽃이라네
패티김	이별 평양중앙예술선전대 전자음악조 반주	7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사랑은 영원히	8	김종환 리분희	눈물젖은 두만강
김명순	부채춤	9	럼청(북)	새타령
석란희	노래와 춤 봉선화	10	오정해	진도아리랑
리순녀 외 9명	장고춤	11	최광호(북)	베싸메무초
합창	우리의 소원은 통일	12	현철	앞으나 서나 당신 생각
		13	현철 최광호	비내리는 고모령
		14	전혜영	휘파람
		15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SBS의 녹화영상을 보면 북한의 화술배우 백승란은 이 공연의 제목을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로저 클린턴 평양공연’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핑클과 젝스키스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음악을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낯설어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실제 공연에서도 관객 호응은 높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의 방송관계자들은 가수 최진희의 창법을 두고 소리가 맑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가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MBC의 민족통일음악회는 녹화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

으나 목록에서 보듯이 발라드가요와 트롯음악을 주로 편성하여 공감대를 얻고자 한 것과 함께 남북의 가수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장면을 연출하여 비교가 된다.

한편 위의 <표 5>를 보면 1990년 연주 이후 남북의 정부 간 교류보다는 민간단체의 방북공연을 많아 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주 내용에서는 전통음악, 양악관현악, 가극, 대중음악 공연 등 다양하며, 그 중 대중음악공연 횟수가 가장 많다. 특히 핑클, 젝스키스, 베이이박스, 신화와 같은 아이돌그룹의 공연에 낯설어하는 북한 인민의 모습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대중문화가 상대적으로 촌스럽다고 여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설운도나 이미지 등이 부른 트롯트 음악은 아이돌의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³²⁾ 이것은 북한에서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민요풍의 노래와 일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음악예술 교류는 남북관계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단절과 재개를 반복하면서도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교류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활약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³³⁾ 등으로 앞시기의 교류양상과는 다른 면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의 음악교류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교류공연이 열린 장소의 불균형성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8회 공연 중 14회가 북한의 평양과 금강산에서 있었으며, 4회만 서울에서 있었다. 남측 민간예술단들의 열성적인 방북 공연과 달리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소극적으로 방남 공연을 하였다는 것이다. 교류는 활성화되었으나 남한의 물량공세와 자본주의적 퇴폐문화에 대해서는 방어기제가 작동한 듯하다. 반면에

32)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공연 동영상 참조.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68963>)

33) 이우영·천현식, “남북 사회문화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8년 학술대회: 지난 10년 대북정책·교류의 회고와 평가』,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8.06.), pp. 68~70.

〈그림 2〉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통일음악회 관객 반응

		
설운도 〈사랑의 트위스트〉	관객반응	
		
신화 〈Perfect man〉	관객반응	

남한 사람들은 잦은 방북과 함께 북한 인민의 실상이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보다는 인도적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북한 예술단 중 리진혁군과 같은 스타³⁴⁾가 탄생하는 일도 있었다.

4.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남북 음악 교류 (2008년~2017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년간 남북한은 서울과 평야에서 다수의 직접음악교류를 해왔다. 그러나 2008년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을 대신하여 집권한 이명박정부와 뒤이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7월 11일에는 금강산에서 인민군이 남측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10년간 지속되었던 금강산관광은 중지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천안함 사건과 서해교전 등으로 대북관계

34) 서유상, “인터뷰 북 최고 음악신동 리진혁,” 『민족21』, 2005년 10호, pp. 68~71.

는 경색되었으며 급기야 2003년부터 남북경협을 교두보로 여겼던 개성 공단이 2016년에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정세의 영향을 받는 남북문화교류는 당연히 경색되었으며, 비정치적인 방북신청 역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이 시기 정부의 중재 속에 진행되었던 남북예술교류가 전혀 성사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남한에서의 북한 음악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³⁵⁾하였다. 북한 음악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 학위논문은 이전 시기2편에서 21편으로 증가하였으며, 단행본과 학술논문은 편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북한 음악의 시기별, 주제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먼저 그 이전 시기에 축적된 학문성과를 계승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 음악을 연구하는 집단이 생성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정권 세습 구도 속에서 직관적인 북한의 음악 정책을 바탕으로 그들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³⁶⁾이다.

이와 같이 남한 정부의 적대적 대북 정책 하에서 남한의 학자들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음악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또 다른 교류의 현상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바로 인터넷을 통한 간접 교류이다. 2005년에 창립된 YouTube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며, 2008년 1월에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북한에서도 YouTube 플랫폼을 이용하여 북한 노래의 화면음악과 자랑할 만한(?) 공연영상, 그리고 조선중앙TV의 뉴스를 YouTube에 업로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류는 이전과는 다른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5) 배인교, “북한, 음악, 그리고 통합연구,” 『한국문화기술』, 제25호 (2018), pp. 36~53.

36) 배인교, 위의 글, p. 53.

남한에서의 YouTube 플랫폼 구축 초기에는 북한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것을 남한 학자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초 『노동신문』의 기사의 ‘축포야회’가 YouTube에 동영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을 전후하여 파스텔 색상의 공주풍 드레스를 입고 연주하는 삼지연악단의 젊은 여성 연주자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검색되면서 소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삼지연악단과 같은 시기에 창단된 은하수관현악단의 연주 영상뿐만 아니라 2009년의 ‘축포야회’와 같은 북한 지도자의 공식행사 동영상들, 그 동영상에 노출된 북한 인민의 모습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와 예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음악을 손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악단에 대한 관심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처(妻) 리설주와 남한에서 ‘북한의 걸그룹’이라 칭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리설주가 주도하여 만들었다는 모란봉악단의 YouTube영상을 통해 남측의 사람들은 북한 음악 형태와 음색, 사운드, 퍼포먼스 등에 익숙해졌다. 이에 더하여 특정 연주 영상을 보고 연주 기술에 대해 칭찬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YouTube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음악 동영상과 함께 탈북인들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 또한 북한을 접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기존의 〈남북의 창〉과 같은 딱딱한 북한 소개 프로그램이 아닌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에서 북한 문화를 다루었다는 점이 기존의 형태와 다른 모습이다. 즉 2011년 12월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2015년 9월부터 방영한 TV조선의 〈모란봉클럽〉 등을 통해 자극적이면서도 단순한 소재의 북한 관련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북한 음악을 대할 때 비난과 조롱, 무시가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림 3〉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조회수



〈그림 4〉

연합뉴스TV 북한의 걸그룹 모란봉악단



〈그림 5〉

은하수관현악단 조희수와 댓글



〈그림 6〉

은하수관현악단 전기기타 댓글



YouTube에서 볼 수 있는 북한 음악 관련 동영상도 예외는 아니다. 남한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과 무시의 댓글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노출된 북한 콘텐츠의 양과 빈도와 증가하면서도 남한의 수용자 층의 인식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즉 조롱과 비난에서 나아가 일종의 놀이처럼 북한 음악 동영상을 소비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아동가요 <대흥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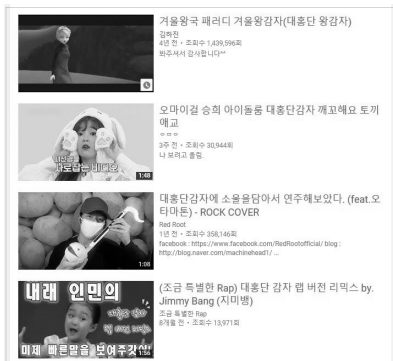
〈그림 7〉
〈대홍단감자〉의 원곡



〈그림 8〉
〈대홍단감자〉의 〈겨울왕국〉 패러디



〈그림 9〉
〈대홍단 감자〉 패러디 목록



〈그림 10〉
〈대홍단 감자〉 마마무 패러디



자〉의 패러디영상이나 cover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성행하였다가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로 인해 이 시기의 남북음악교류 역시 단절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악인의 왕래와 이들에 의한 음악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 북측에 대한 호의와 관심, 그리고 북한음악연구의 증가로 인해 북한 음악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으며, 이것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간 남측의 국민들은 북한의 1호 아나운서인 리춘희 아나운서의 호전적이고 단호한 어투의 말만 접해왔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삼지연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과 같은 음악단체의 공연 동영상은 북한을 재인식하고, 그들의 음악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문화의 음악을 접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한 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처음에는 서로 비교·비하하다가 접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또 다른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고 결국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경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문재인정부와 남북 음악 교류의 재개 (2018년)

2017년까지 핵무력 시위를 벌였던 북한의 태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반전되었다. 2018년의 신년사설에서 김정은은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움의 의지가 있음을 표방³⁷⁾하였으며,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북한의 ‘마식령속도’로 유명세를 탔던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스키종목선수들의 합동훈련을 갖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여지없이 북한 악단의 방남 음악 공연이 있었다.

올림픽 개막일 하루 전인 2월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공연(단장 현송월, 지휘자 장룡식·윤범주)이 있었는데, 이는

37) 『노동신문』, 2018년 1월 1일.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2002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있었던 8.15민족통일대회 북측예술단 초청 공연 이후 16년만이다. 그리고 삼지현관현악단은 2월 11일 서울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가졌다. 삼지현관현악단의 공연 목록을 정리³⁸⁾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현관현악단 특별 공연: 강릉〉

순서	편성	곡목	지휘
서주	8중창	반갑습니다	장룡식
1	8중창	흰눈아 내려라	장룡식
2	녀성중창	평화의 노래: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장룡식
3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4	녀성2중창	J에게	윤범주
5	녀성독창	여정	윤범주
6	가무	달려가자 미래로	
7	현악합주와 녀성독창	새별	장룡식
8	관현악	친근한 선율: 아리랑, 검투사의 입장,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뮌헨에 행진곡, 아득히 먼길(러시아민요), 집시의 노래, 검은 눈동자, 또까따, 락엽, 가극극장의 유령, 띠꼬띠꼬, 차르다쉬, 흑인 영감 조, 레드강 골짜기, 백조의 호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대 나를 일으켜 세우니, 스케트 타는 사람들의 왈츠, 라데즈키 행진곡, 카르멘 서곡, 윌헬름텔 서곡, 나의 해님, 오랜 우정 푸니꼴라, 푸니꼴리, 빛나는 조국(25곡)	장룡식
9	노래런곡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리별, 당신은 모르실거야, 사랑, 사랑의 미로, 해뜰날, 다함께 차차차, 어제 내린 비, 최진사댁 셋째 딸, 홀로 아리랑(10곡)	윤범주
10	녀성3중창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장룡식
11	종곡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	장룡식

38) 삼지현관현악단의 강릉공연은 〈https://www.youtube.com/watch?v=PB-qBU7Z_7E〉에서, 서울공연은 〈<https://www.youtube.com/watch?v=OD7cLYTIdVo>〉에서 확인하였다.

강릉공연과 서울공연은 소위 수미상관(首尾雙關)을 따라 기획된 공연이다. 서곡의 〈반갑습니다〉와 종곡의 〈다시 만납시다〉는 물론이고, 두 번째 곡인 〈흰눈아 내려라〉를 연주할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도입부로 두었다가 종곡에서 다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평화의 노래: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후반부의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과 대응하며, 이어진 남한 노래도 정확히 북한 노래와 대응하며 자리하였다. 그리고 연주 중간부분에는 북한 노래와 관현악을 편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 무대 배경으로 한반도기를 사용하거나 남한의 여러 가요들을 이어 부른 노래연곡 중 마지막 곡을 독도를 상징하는 〈홀로아리랑〉을 넣음으로써 북한은 일본에 대한 민족 공동의 연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강릉의 공연과는 달리 서울 공연에서는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을 현송월 단장이 인사와 함께 노래하였으며, 종곡은 소녀시대 서현이 함께 하였다.

〈그림 11〉 삼지연관현악단 피날레



북한의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은 보도된 것처럼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을 기본으로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 단원 일부를 조합한 일종의 compilation

악단이었으며, 최근 삼지연관현악단 전용극장을 개관한 것으로 보아 독립악단으로 체제가 정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룡식은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최정상급 지휘자이며, 윤범주는 은하수관현악단 소속 지휘자였다. 이번 북측의 연주회에 대한 남측의 반응은 북한에서 남한 노래가 불리기는 하지만 1990년대까지의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장룡식과 윤범주를 비롯한 관현악단의 연주 기량이 매우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선보인 <가무곡>에 대해서 배우들의 의상에 집착함으로써 1985년 공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남과 북의 미적 감수성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연 영상의 녹화방송 자막 중 지휘자 장룡식은 ‘장룡식’으로, 윤범주는 ‘윤범주’라 쓴 것으로 보아 여전히 북한 음악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강릉 공연 영상 중 출연자 소개 자막



2월의 방남 공연에 이어 4월에는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온다>가 4월 1일과 5일에 각각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있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4월 1일은 남한측의 단독공연이었고 5일은 남북한합동공연이었다. 방북공연의 총감독은 가수 윤상이 맡았다.

〈표 8〉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온다〉 공연 목록

순서	동평양대극장		류경정주영체육관	
1	석예빈 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석예빈 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	정인	오르막길	정인	오르막길
3	알리	평평	알리	평평
4	정인, 알리	동그라미	정인, 알리 김옥주, 송영	동그라미
5	백지영	충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서현	푸른 버드나무
6	강산에	라구요 명태	레드벨벳	빨간맛
7	YB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나는 나비, 1178	강산에	라구요 넌 할 수 있어
8	레드벨벳	빨간맛 Bad Boy	최진희	사랑의 미로 뒤늦은 후회
9	최진희	사랑의 미로 뒤늦은 후회	백지영	충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10	이선희	J에게 알고 싶어요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김옥주 이선희	J에게 아름다운 강산
11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 꿈,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YB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1178
12	서현	푸른 버드나무	삼지연관현악단	계몽기가요 련곡 절레꽃, 눈물 젖은 두만강, 아리랑 고개, 작별, 락화류수, 동무생각
13	합창	친구여, 다시 만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조용필	친구여, 모나리자
14			삼지연관현악단 백지영, 정인, 이선희, 알리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

방북예술단이 형상한 두 차례의 공연 구성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방북공연에 참가하였던 가수들과 함께 북한에서 볼 수 없는 허스키보이

스를 가지고 있는 여가수인 정인, 알리, 백지영, 그리고 걸그룹 레드벨벳, 실향민 부모를 둔 가수 강산에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2월 공연에서 잠깐 출연하였던 서현이 사회자로 참여하여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불러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9월에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는 알리, 에일리, 래퍼 지코가 동행하였다.

이 공연에 대하여 『노동신문』에서는 “시종일관 북과 남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합쳐지고 동포애의 따뜻한 정과 열리 넘쳐흐른 련합공연은 관람자의 절찬을 받았다”고 서술³⁹⁾하였다. 그리고 『조선신보』에서는 “공연성과를 축하하는 기립박수는 10분이상 멈추지 않았다”고 하면서 “출연자들이 무대 위에서 손을 맞잡고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을 목소리 합쳐 노래

〈그림 13〉 2018년 4월 남측 공연에 대한 북한 관객의 반응



3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북한문화동향 -2018년 상반기』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p. 79.

하는 모습은 장내를 민족화합의 열기로 달아오르게 하였다”⁴⁰⁾ 하였다.

그러나 남측의 공연은 주로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세계의 음악문화를 알리려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또한 공연을 통해 목소리나 몸짓, 노래의 내용 등 자유롭게 음악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 때문이었는지 이번 공연에 대한 북한 관객의 호응은 2000년대 초반의 공연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전히 낮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Ⅲ. 남북 음악 교류의 의미와 방향

지금까지 1985년부터 시작된 남북의 음악교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1985년부터 있었던 남과 북의 음악교류는 햇수로 30년이 넘었으나 기간 중간에 약 10여년씩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매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교류 연주회가 있었다.

1985년의 방남 방북공연은 모두에게 분단이후 처음으로 변화된 음악을 선보인 자리였다. 그러나 이 공연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온 음악 작업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기 보다는 적개심이 가득한 공연평이 난무하였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북한의 방남공연에 대하여 “30, 40년대 악극, 신파조, 대중가요적 발성, 원색과 스팅클(뽀짝이) 등을 남용한 의상 등에서 보이는 미감이 예술적이지 못하고 유치하다”는 논조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2012년 모란봉악단 공연에 대한 남쪽 언론사의 논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모란봉악단의 음악형태와 공연 구

4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의 책, pp. 85~86.

성, 그들의 음악적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아닌 “반짝거리는 민소매 미니 스커트와 킬힐을 착용한 여성 연주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놓은 것이 그렇다. 이러한 북한 음악에 대한 무시와 적대적인 감성의 표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기간에 있었던 삼지현관현악단의 연주에도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공연주체에 대한 힐난은 체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간 남북의 음악교류가 어려웠던 것은 북한 노래의 사회주의적 이념성과 남한 노래의 자본주의 퇴폐성도 한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선전을 위한 효과적인 장르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기에 1990년 통일원에서 제시한 남북 음악교류의 5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음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설령 남한에서 북한 노래를 듣거나 부를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북한 역시 자본주의사회의 부르주아적 퇴폐성을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이념성을 표현한 남한 노래가 북한 사회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항상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었던 일련의 음악교류활동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북의 음악연주자들은 상대측의 음악을 연구해왔던 경험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10년 전 남북 음악교류가 활발했을 시기의 교류에 대한 성과를 논하는 글에서 민간 행사의 정례화와 남북교류의 제도화가 정착되었으며, 사회문화교류가 남북의 정치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기틀이 마련되고, 쌍방향 교류를 통한 남북 통합과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⁴¹⁾고 하였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한계와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남북의 정치 상황

41) 이우영·천현식, “남북 사회문화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8년 학술대회: 지난 10년 대북정책·교류의 회고와 평가』,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8.06.), p. 71.

에 음악교류가 종속된 점이나 남한 내의 강력한 반북·반공 성향, 북측의 경직된 태도는 고질적이며, 남측이 주도한 사회문화교류가 남한 내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 1회성의 보여주기식 교류로 인해 성과 축적이 어려운 점, 국가보안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들면서 다음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표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고, 민간 중심의 교류가 중심이 되지 못하며, 교류에 참여한 특정 단체나 인물 사이의 네트워크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것이 국제교류의 형태로 나아가지 못하였기⁴²⁾ 때문이다. 한계와 문제점은 2007-2008년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남북음악교류가 재개된 시기에 출판된 글⁴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년 만에 재개된 남북 음악교류 실현을 계기로 향후 취해야할 입장과 행동에 대한 고려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1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던 남북의 예술교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단기 목표설정 아래 진행 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남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했고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나야 한다. 이제 그럴 시점이 되었다”⁴⁴⁾는 18년 전 이진용의 말처럼 리

42) 이우영·천현식, 위의 글, p. 73.

43) 양정훈·강석승,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 증대방안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2007), pp. 181~199; 노동은, “남북 문학예술의 교류-음악,” 『실천문학』, 60호 (2000), pp. 309~312; 노동은, “남북 공연분야의 교류와 현황,” 『민족발전연구』, 7호 (2002), pp. 63~73; 민경찬, “남북한 음악교류의 현황과 미래,” 『한국전통음악학』, 창간호 (2000), pp. 329~339; 김수길·황병기, “남북 음악교류의 방향,” 『현대이념연구』, 15집 (2000), pp. 99~106; 이진용, “문화예술현상 읽기/남북 음악 교류, 양쪽 음악이 살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일,” 『월간 문화예술』, 8호 (2000); 노동은, “남북한 음악교류의 역사와 전망,” 『음악학』, 9집 (2002), pp. 313~323.

44) 이진용, 위의 글.

셋(reset)된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남북 음악 교류의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적대적인 분단 상태임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음악교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남북한 문화 동질성의 확인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폭넓은 사회교육을 필요로 함을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음악이라는 장르는 인간의 오감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과 청각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직접 자극한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와 문화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좀 더 친밀해질수록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교류는 더불어 활발해 질 것이다. 따라서 남북 음악교류를 위해 기본적으로 남과 북 모두 상대방을 이기려는 의식, 자문화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와 사회에서 통일교육이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회통합과 남북화해를 위한 사회교육을 바탕으로 각 체제의 음악에 대한 순차적 개방과정이 요구된다. 지난 남북교류의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어색해하며 비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음악을 존중하는 일말의 계기를 마련해왔다. 향후 교류의 횟수를 늘려나갈수록 서로의 음악에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음악 청취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에 모두 있는 국가보안법 성격의 법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 정례적 교류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악 및 서양음악, 전통음악(민족음악), 대중음악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남북한 음악 교류를 위한 사회단체 설립이 요구된다. 이를 매개로 하여야 남북한 작품의 교류, 연구 성과의 교

류, 그리고 연구 자료의 교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두어 학생 및 음악 교육자, 음악인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한민족 음악문화 자료관과 같은 아카이빙 센터를 마련할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민족 문화의 융합과 통합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2000년대 교류의 방식이 한계가 있기는 하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교류음악회가 더 자주 개최될 필요가 있으며, 일회성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양악, 전통음악, 대중음악 분야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양악의 경우 남한에도 잘 알려진 해외 콩쿠르 우승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음악회가 있을 수 있으며, 북한식 관현악곡과 남한의 창작곡 교류 등이 있을 수 있다. 전통음악의 경우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북한음악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악 관현악 단체와 함께 북한의 국립민족예술단과의 접촉을 통해 교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악교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장르와 연령대를 고려한 교류가 필요하다. 남한에 다양한 대중음악 갈래가 있는 것처럼 북한의 경우도 노년세대가 즐기는 음악, 청년세대의 음악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단이후 30여년 만에 시작된 음악교류의 시간은 단절되었던 시간만큼 길다. 조그만 구멍 하나가 큰 독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음악 교류의 시작과 양상은 비록 초라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향후 한반도의 한민족 역사에 큰 의미를 차지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음악인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성률. “(관평) 조국도 하나, 음악도 하나 -윤이상통일음악회를 보고.” 『조선예술』, 1호 (1999), pp. 53~54.
- 김수길 · 황병기. “남북 음악교류의 방향.” 『현대이념연구』, 15집 (2000), pp. 99~106.
- 김원균. “(수기)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성과적으로 치르고나서.” 『조선예술』, 12호 (1990), p. 17.
- 김춘미 · 김용환 · 민경찬 · 이영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 노동은. “남북 공연분야의 교류와 현황.” 『민족발전연구』, 7호 (2002), pp. 63~73.
- _____.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음악.” 『실천문학』, 60호 (2000), pp. 309~312.
- _____. “남북한 음악교류의 역사와 전망.” 『음악학』, 9집 (2002), pp. 313~323.
- 민경찬. “남북한 음악교류의 현황과 미래.” 『한국전통음악학』, 창간호 (2000), pp. 329~339.
- 박미영. “북한에서의 시조 연구 동향과 과제 -1980년대 이후의 논저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39집 (2013), pp. 9~44.
- 배인교. “북한, 음악, 그리고 통합연구.” 『한국문화기술』, 25호 (2018), pp. 29~58.
- 서유상. “인터뷰 북 최고 음악신동 리진혁.” 『민족21』, 10호 (2005), pp. 68~71.
- 성동춘. “(론설) 하나의 민족음악으로 조국통일성업에 이바지하자.” 『조선예술』, 12호 (1990), pp. 13~14.
- 양정훈 · 강석승.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 증대방안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2007), pp. 181~199.
- 이건용. “문화예술현상 읽기/남북 음악 교류, 양쪽 음악이 살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일.” 『월간 문화예술』, 8호 (2000년).
- 이우영 · 천현식. “남북 사회문화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8년 학술대회: 지난 10년 대북정책 · 교류의 회고와 평가』, (2008. 0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북한문화동향 2018년 상반기』.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한영애. “(관평) 온 민족이 함께 부른 통일의 노래 -범민족통일음악회를 보고.” 『조선예술』, 12호 (1990), pp. 15~16.

『경향신문』

『동아일보』

『로동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기타자료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69031>〉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68963>〉

〈https://www.youtube.com/watch?v=PB-qBU7Z_7E〉

〈<https://www.youtube.com/watch?v=OD7cLYjTdVo>〉

Trend and Direction of Inter-Korean Music Exchange

Bae, Ihn-gyo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In this paper, I review the aspects of inter-Korean music exchanges that have been going on in the past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future inter-Korean music exchanges

Inter-Korean music exchanges were divided into four periods from 1985 to 2018. The exchange of the first period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inter-Korean music exchange is embodied for the first time. Compared to 1985, when the hostile feelings toward each other were expressed, in 1990, they looked for unification-oriented commonalities, and found elements that would act positively for both Koreas. In the second period of inter-Korean music exchange, there was music exchange in various fields centered on private organizations. But there were many occasions that stopped at one time. And South Korea was more active in exchanges than North Korea. For the next decade, music exchange events have never been realized. However, rather than actual exchanges, virtual space has been on the way of music exchange on YouTube. Through these exchanges, I have seen that North Korean music is becoming a content for South Koreans. Music exchanges through YouTube, a virtual space, were realized in 2018 in 16 years of actual exchange.

The exchange of music with the resumption of political exchanges can be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cogni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of the two Koreas, even if there are limitations. For the future inter-Korean music exchanges,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strive to contribute to restoring trust. To this end, unification education and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related to inter-Korean cooperation need to be done at the national level. Also, whatever the way, we need to meet more often and be exposed to your music more often. And the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ss for long-term, regular exchange based on trust.

Key Words: inter-Korean music exchange, hostile feeling, unification-oriented commonalities, YouTube, recogni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배인교(Bae, Ihn-gyo)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음악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경인교 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이며, 한양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이다. 주요 연구관심은 북한의 민족음악, 현대 북한 음악, 북한의 아동가요 등이며, 최근의 연구물로는 『한(조선) 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3』, “1950-60년대 북한 음악계의 타성 제거 논쟁 검토” 등이 있다.